

SK건설(주)

20억 6천만 달러 규모 플랜트 공사 단독수주

화공플랜트의 세계적 기술을 자랑하는 SK건설(대표 유웅석)이 최근 쿠웨이트 제 4정유공장 프로젝트 중, 2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번 패키지를 단독 수주했다.

쿠웨이트에서 약 58억 달러의 누적 수주로 국내 건설업체 최대 수주를 기록 중인 SK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SK건설 해외 수주 금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SK건설은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인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2정유공장 프로세스 쿠웨이트 제 4 정유공장 신설 공사에서 정유공장의 프로세스 공정인 수소 회수·압축 및 생산공장, 황 회수 공장 등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쿠웨이트 제 4 정유공장 공사 프로젝트는 쿠웨이트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알 주르(Al-Zour)' 지역에 61만5000 배럴 규모의 대형 정유공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 금액은 83억 달러 수준이다. 전체 공정을 5개 패키지로 나눠 이 중 4개 패키지를 입찰한 결과 2번 패키지를 수주한 SK건설을 비롯해 4개 패키지 모두 한국 업체 단독 또는 한국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특히 SK건설은 한국 건설업체 단독 입찰참여자 중 최고 금액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주 금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도 거두게 됐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등 플랜트 부문의 강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테크윈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 참가

테크윈(대표 정봉익)은 COEX에서 오는 6월 10~13일, 4일간 열리는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 참가, 대기, 수질, 폐기물 부문의 여러 기술 제품을 전시한다.

테크윈 환경설비는 현재 국내에 70여대의 RTO(축열식 폐가스소각설비)와 SRS(폐가스중의 용제회수설비), De-NOx 설비, 폐액소각설비, 전기분해를 이용한 폐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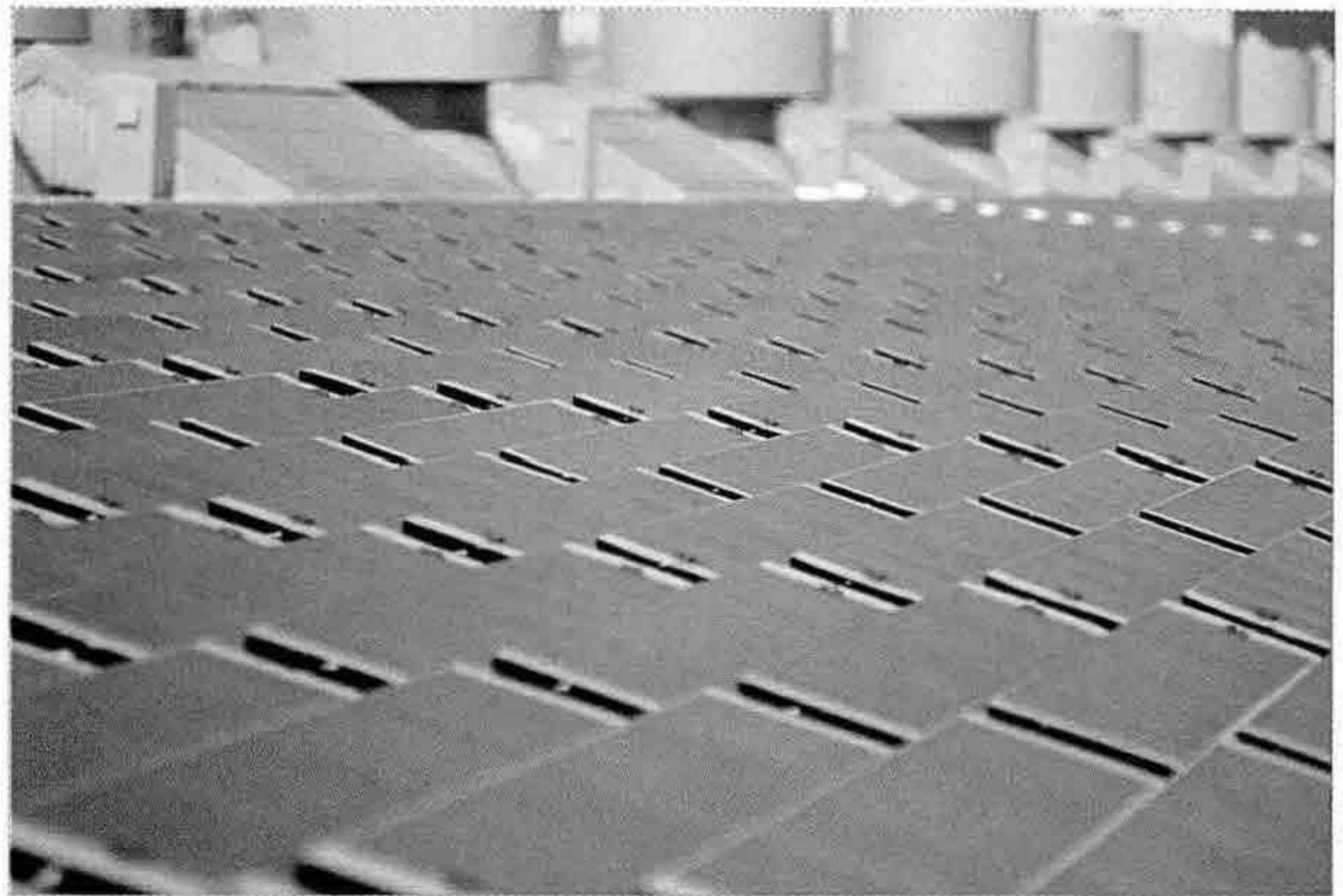
설비, 하수전해소독설비가 설치 운전되고 있다.

RTO 및 전기분해극판 등은 일본 및 중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중국에서 시행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포철기연

광양제철소 4냉연공장 지붕에 1MW급 시공



포스코(대표 이구택)가 국내 최초로 공장 지붕 위에 대 단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4냉연공장 제품창고 지붕 약 6만 6000㎡ 중 남쪽 경사면 3만3000㎡에 1MW급 박막형 태양광모듈을 설치, 6월2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으며 지난 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진행된 이번 공사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철기연(대표 정상훈)에서 63억5000만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한지 2개월 만에 완공됐다.

지붕 위에는 136W 박막형 태양광모듈 7348장이 장착됐으며, 전용 전기실에는 인버터 250KVA 4기, 변압기 1250KVA 1기가 설치됐다. 한국전력과 계통연계를 위한 22.9KV 고압케이블 5Km 등 송전설비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각각 미국의 UNI-SOLAR社와 Xantrex社 제품이 사용됐으며, 국내 유통은 '에너지아(모듈)'와 '우진기전(인버터)'이 맡았다.

포철기연 관계자는 “광양제철소 태양광발전소는 하루 평균 3.4시간 발전해 일반 주택 약 25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연간 77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최초로 공장 지붕에 대용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회사 브랜드 가치 향상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본격적인 상업운전으로 연간 약 8억 4000만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천리

2MW급 ‘함평태양광발전소’ 준공



삼천리(대표 이영복)는 지난 5월 15일 전남 함평에서 ‘함평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석형 함평군수, 정현철 함평군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이영복 사장 등 삼천리 관계자, 시공사인 커너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함평태양광발전소’는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제2주차장 부지에 엑스포 행사개막식에 맞추어 완공한 2MW급 발전소로 지난 4월 22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번 태양광발전소는 주차장 부지 위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토지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환경 친화형 축제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와 공해를 발

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삼천리 이영복 사장은 “함평태양광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의 전방분야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케너텍

‘축열컨테이너’ 특허 획득

(주)케너텍(대표 정복임)은 지난 5월 21일 ‘축열컨테이너’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축열컨테이너’는 케너텍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축열컨테이너의 전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제품은 축열컨테이너 내부에 개폐가 가능한 다수의 보조 열매유관을 설치해 잠열축열재와 보조 열매유관 사이에 균일하게 고온의 열매유를 흐르게 한다. 잠열축열재 내부에 다수의 열매체 유로를 우선 형성시킨 후, 형성된 열매체 유로로 고온의 열매유를 흘려보내 잠열축열재와 열매유가 직접 접촉에 의하여 열전달하게 함으로써 잠열축열재와 열매유 사이의 열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케너텍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이 없어 버려지고 있는 폐열을 축열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열택배사업 추진시 고효율 축열컨테이너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열택배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